“달빛내륙·광역철도, 국가망 반영돼야”

이용섭 광주시장, 확대간부회의서 강조

“광주·전남 교통망 확충 큰 그림 위해 중요”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16일 확대간부회의를 하는 모습.

이용섭 광주시장은 16일 “달구별 대구와 빛고을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와 광역철도 등 광주의 미래 발전을 담보할 광역교통망 사업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최상위 철도계획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이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어서 광주·전남 교통망 확충의 큰 그림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 시장은 “달빛내륙철도와 광주~나주, 광주~화순 광역철도, 광주역~송정역 복선전철 등 4개 노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광주·전남 45개 시민단체도 최근 지역격차 해소 차원에서 광주·전남 철도망을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며 “교통건설국에서는 건의된 사업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 시민단체, 전남도, 대구시와 긴밀히 연대해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광주와 대구 사이 203.7㎞ 구간을 고속화철도를 통해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조850억원이 소요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남북축 위주의 철도망에서 벗어나 동서축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으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영·호남 남부경제권을 형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광주~나주, 광주~화순 구간 광역철도 노선 신설은 주변 도시와의 교통연계성을 강화해 광역경제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젝로, 2개 구간 모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기동취재본부

전남도, 북극 한파 농작물 피해복구비 63억원 지원

1ha 기준 농약대 200만원·대파대 250만원

전남도는 지난 1월 발생한 한파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피해복구비 63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1월 초 북극 한파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배추, 시설고추, 시설감자 등 농작물 2240㏊에 대한 복구 지원을 농식품부에 건의해 왔다.

이번 복구비는 농약대와 대파대를 중점 지원한다. 지원단가는 품목에 따라 다르다. 피해가 가장 많은 배추는 1㏊ 기준으로 농약대는 200만원이고, 대파대는 250만원이다.

농가의 피해 규모와 정도에 따라 복구비 지원과는 별도로 이자 감면과 상환 연기 37억원, 재해 경영자금 13억원도 융자 지원한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신속한 지원을 통해 농가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농업재해에 대한 신속한 피해복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유자, 녹차, 무화과 등 피해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농작물은 작물에 따라 4월 말까지 피해 정밀조사를 한 후 복구 지원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김정환 기자

광주시, 먹는 물 ‘빛여울수’ 라벨없이 생산

무색투명 페트병…분리수거 편의·1회용품 감축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4월부터 라벨을 제거한 무색투명한 페트병에 담긴 ‘빛여울수’를 생산·공급한다.

라벨 없는 빛여울수는 페트병을 배출할 때 라벨을 분리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1회용 플라스틱 감축이라는 정부의 재활용 분리수거정책에 동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라벨 없는 빛여울수는 1800㎖ 10만 병을 생산할 예정이며 350㎖는 생산 계획이 없다.

시는 2007년부터 상표띠 라벨이 부착된 병입 수돗물 빛여울수를 생산, 비상급수용으로 사용하거나 각종 사회복지시설, 행사 등에 지원해 왔다.

2019년 4월 광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1800㎖ 빛여울수를 비상급수용으로만 공급하고, 생산량도 2018년 70만 병, 2019년 24만 병, 지난해 9만6000병으로 대폭 감소시켰다.

염방열 상수도사업본부장은 16일 “라벨 없는 빛여울수 공급으로 1회용 플라스틱 배출 감량을 공공부문이 솔선하고 2045 탄소중립에너지 자립도시 광주 구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광주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어린이집 40개소 대상 ‘그림책 읽어주는 고양이’

광주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이 관내 어린이집 40개소를 대상으로‘그림책 읽어주는 고양이’를 운영한다.

‘그림책 읽어주는 고양이’는 그림책을 읽어주는 고양이 모양의 디바이스와 모니터를 연결한 후 북카드를 꽂으면 그림책 화면과 동화구연을 제공하는 비대면 독서지원 서비스로 TV나 빔 프로젝트 등을 이용하여 독서 수업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눠 반기당 20개소를 선정할 예정으로 상반기 운영대상 어린이집은 지난 16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다.

최윤희 기자

동구, 투명페트병 소중한 자원이 됩니다

광주 동구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5일부터 300세대 이상 및 150세대 이상이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 됐다.

이에 따라 동구는 관내 43개 의무대상 공동주택에 자원순환해설사들이 나서 분리 배출함 설치 및 올바른 분리배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상반기 동안 중점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서구,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의견제출 운영

광주 서구는 개별·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 또는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개별주택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공동주택은 다음달 5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의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을 열람 또는 의견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대상은 개별주택 1만4289호, 공동주택 9만1179호 등 총 10만5468호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서구 세무1과 주택평가팀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으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하면 된다.

남구, ‘3D 펜 지도사’ 청년 IT강사 양성 인기

광주 남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오는 4월부터 선보일 예정인 3D 펜 지도사 1급 양성 과정 프로그램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구는 16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IT 분야 청년 강사 양성을 위한 3D 펜 지도사 1급 양성 과정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이 일주일 만에 마감됐다”고 밝혔다.

3D 펜 지도사 1급 양성 과정 프로그램은 (사)한국예술문화연합회와 연계한 협력 사업으로,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 및 신산업 분야의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북구,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지원 정책 추진

광주 북구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의 경기침체 회복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에 나선다.

북구는 △생애주기별 지원 △지속가능한 자영업 환경 조성 △포용적 금융서비스 등 3개 분야 15개 과제로 구성된 2021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생애주기별 지원 분야에서 소상공인 종합컨설팅, 임차 소상공인 3무 특례보증, 온라인 마케팅 교육, 경영환경 개선 동행 프로그램 등 창업과 성장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광산구, ‘골목형 상점가’ 지원 길 열었다

광주 광산구가 16일 조례를 지정해 온누리 상품권을 골목상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조례로 다양한 업종이 밀집한 상권에 활력이 돌 전망이다.

광산구가 마련한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는 2000㎡ 범위 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규정하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온누리 상품권뿐만 아니다. 국비를 지원하는 정부의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법정 자격을 갖추게 된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선정되면 ▲시설 현대화 사업 ▲경영 바우처 사업 ▲화재경보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임형택 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 우 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